



## 언어과학 제19권 2호

ISSN : 1225-2522(Print)

# 자막의 번역특징과 유표적 대사의 번역전략 : 영화 <위험한 상견례>를 중심으로

이상도, 손은희

To cite this article : 이상도, 손은희 (2012) 자막의 번역특징과 유표적 대사의 번역전략 : 영화 <위험한 상견례>를 중심으로, 언어과학, 19:2, 97-118

① earticle에서 제공하는 모든 저작물의 저작권은 원저작자에게 있으며, 학술교육원은 각 저작물의 내용을 보증하거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② earticle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무단 복제, 전송, 배포, 기타 저작권법에 위반되는 방법으로 이용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민, 형사상의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www.earticle.net](http://www.earticle.net)

# 자막의 번역특징과 유표적 대사의 번역전략: 영화 <위험한 상견례>를 중심으로\*

이상도 · 손은희

(부산대학교)

Sangdo Lee and Eunhee Son (2012), *Translating Subtitles of Marked Speech in Films Focusing on the Movie 'Meet the In-laws'*. *Journal of Language Sciences* 19(2), 97-118. This study sees there are three characteristics when translating film dialogues into another language, simplification, standardization, and neutralization. These characteristics are inevitable due to the time and space constraints in audio-visual translation-subtitling. The problem is today's language runs in opposite direction. People increasingly use marked expressions. Films, which reflect real life of people, absorb these marked speeches. This study categorized the marked speech into three, dialects, emotionally charged words, and culture-bound words. This paper suggests the strategies to deliver markedness of these types of words into more functionally equivalent words, analyzing Korean and English subtitles of a movie, 'Meet the In-laws'(2011), whose dialogues feature marked speech. Based on this movie, Dialects of ST were translated using specific vocabularies, non-grammatical expression, or marked spelling. Emotionally charged words showed a tendency to be omitted or weakened. This study suggests translation strategies for culture-bound words, such as loan, calque, explicitation, transposition, omission, and lexical recreation. This study emphasizes the importance of translation as the bridge of cultures and countries especially in the field of subtitling. (Pusan National University)

**Key Words:** film translation, subtitling, marked speech, dialects, emotionally charged words, culture-bound words

## 1. 서론

최근 우리나라 대중문화의 중심에는 '한류'가 있다. '한류'는 1996년에 중국으로 수출된 한국드라마를 시작으로 한국문화에 대한 인기를 포괄하는 신조어

---

\* 본 논문은 두뇌한국(BK)21 사업단에 의하여 지원되었음.

이다. 중국을 비롯해서 일본, 홍콩, 대만, 그리고 최근에는 유럽을 포함한 해외에서 한국드라마 뿐 아니라 한국의 대중음악도 점점 그 입지를 굳혀가고 있다. 한국영화진흥위원회(2012)의 통계에 따르면 1980년대 한 자리 숫자에 불과했던 한국영화의 수출편수는 2001년 처음으로 100편을 넘어섰고, 2011년에는 총 366편에 달한다. 또한 한국영화는 각종 국제영화제에 초청되거나 다양한 분야에서 상을 받으며 예술성과 대중성을 인정받고 있다. 이와 같이 우리의 문화가 해외에서 인정받기까지는 문화적 가교로서의 번역이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음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그러나 영상번역, 특히 한국어에서 다른 언어로 번역의 경우는 그 실효성에도 불구하고 국내 연구가 미흡한 실정이다.

본 연구는 영상번역의 다양한 종류를 살펴보고, 그 중에서 국내에서 가장 널리 사용되고 있는 자막번역의 특징을 단순화, 표준화, 평면화의 세 가지로 분류한다. 이러한 특징은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는 자막번역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현상이며, 한영번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긴 역사를 가진 영한번역의 예에서 이를 뒷받침할 근거를 제시한다. 위와 같은 자막번역의 특징이 가장 두드러진 부분은 유표적인 대사이다. 유표성이란, 비표준적 언어에 의해 특징지어지거나, 일정 수준의 표준어에 속할지라도 중립적이지 않고 다소간의 함축적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언어를 뜻한다(Díaz-Cintas and Remael, 2007). 본 연구는 영화대사에서 유표성을 나타내는 도구를 크게 방언, 감정적 언어, 문화지시어의 세 가지로 나누고 각각이 어떻게 영어로 번역되고 있는지, 유표성이 상실되는 이유는 무엇인지, 유표성을 유지하기 위한 보완기제로서의 번역 전략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를 한국영화 <위험한 상견례(2011)>를 비롯한 6개 영화의 ST(Source Text)와 TT(Target Text)의 분석을 통해 살펴보고자 한다.

영화 <위험한 상견례(2011)>를 주요 분석대상 텍스트로 선정할 이유는 영화의 전체 대사가 경상도와 전라도의 방언 중심이고, 욕설이나 금기어, 음식 이름이나 지역성을 나타내는 상표 등의 고유명사가 영화의 주요 소재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유표적 대사가 주를 이루고 있음으로 본 논문의 연구주제에 부합하기 때문이다.

## 2. 영상번역의 종류

영화번역을 논하기에 앞서 영상번역의 방법은 크게 ‘주류’와 ‘비주류’의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M. 졸리(1999)는 주류 번역을 다시 자막(Subtitles), 더

빙(Dubbing), 보이스 오버(Voice Over, VO)로, 비주류 영상번역을 각종 보조금을 받기 위한 시나리오/대본 번역, 청각 장애우를 위한 동일 언어 간 자막 처리, 시각 장애우를 위한 음성해설, 오페라나 연극 무대 위의 스크린에서 배우의 대사를 자막으로 띄우는 무대자막<sup>1)</sup>으로 세분하여 정리하였다. 2장에서는 주류 영상번역 기법인 자막과 더빙, 보이스 오버, 그리고 최근 인터넷을 기반으로 비전문가 번역의 한 형태인 팬서브를 간략하게 개관할 것이다.

## 2.1. 자막

Jakobson(1959; Munday, 2008에서 재인용)은 번역을 ‘동일 언어 간 번역’, ‘다른 언어 간 번역’, ‘기호 간 번역’의 세 가지로 분류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자막번역은 한 언어에서 다른 언어로 바꾼다는 점에서 ‘다른 언어 간 번역’에 해당되고, 말로 표현된 언어를 시각적 기호인 글로 바꾼다는 점에서 ‘기호 간 번역’으로 볼 수 있다(장민호, 2008A). 이렇게 ‘언어 간’ 그리고 ‘기호 간’ 번역이라는 복합적 성격 뿐 아니라, 자막번역만의 시간적·공간적 제약이 있다. 즉 영한 번역의 경우, 일반적으로 1초당 3글자, 한 줄에 8자 내외로 제한되고, Hatim and Mason(1997)은 영어가 TT일 경우, 띄어쓰기를 포함해서 33자에서 40자이내로 두 줄을 넘지 않아야 한다고 말한다. 이러한 제약은 3장에서 살펴볼 단순화를 비롯한 자막번역의 특징으로 이어진다.

## 2.2. 더빙

더빙은 외국어로 된 영상물의 대사를 해당 언어로 바꾸어 다시 녹음하는 것을 일컫는 말로, ‘재녹음’, 혹은 ‘재녹화’라는 우리말이 있지만, 일반적으로 더빙으로 통용된다. 더빙은 언어에서 언어로 번역된다는 점에서 자막보다 단순하게 여겨질 수 있지만, 배우의 입모양과 목표언어의 대사를 어느 정도 일치시켜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 그 외의 특징으로는 원천언어를 들으면서 동시에 볼 수 있는 자막과는 달리, 더빙은 목표언어 관객이 원천언어에 접근할 수 있는 경로가 차단되기 때문에 의미의 왜곡이 의도적이든 의도적이지 않던 가능하며, 관객은 이를 파악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그러므로 더빙은 영화에

1) 국어사전에서는 ‘무대자막’은 무대의 배경이 되는 막이나 앞막에 비친 글자 또는 그 막이다. ‘surtitle’에 해당하는 우리말 번역이 아직 자리 잡지 못하고 있으며, 통상 영어로 surtitle 혹은 단순히 자막으로 불리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오페라나 연극 무대에서 주로 사용되는 ‘surtitle’을 ‘무대자막’으로 지칭하기로 한다.

대한 일종의 검열 수단으로 인식되기도 한다(장민호, 2008A). 우리나라 TV나 영화와 같은 영상물의 경우, 과거에는 더빙이 주류를 이루었으나, 최근에는 자막의 비중이 크게 늘어나고 있다. 이것은 원천언어를 그대로 들음으로써 작품을 감상하고 싶어 하는 관객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짧은 시간에 글을 읽기 어려운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작품은 여전히 더빙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 2.3. 보이스 오버

보이스 오버는 주로 다큐멘터리나 뉴스 인터뷰, 국제 뉴스, 혹은 올림픽이나 아카데미 시상식과 같은 주요 행사의 위성 보도에서 자주 사용된다. 말 그대로 원천언어 음향의 소리만 줄인 채 그대로 두고, 그 위에 번역된 목표언어를 입히는 것이다. 보이스 오버는 TV영상물의 번역에서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지만, 영화에서는 거의 사용되지 않는다.

### 2.4. 팬서브

팬서브(Fansubs)는 1980년대와 90년대 미국 내의 일본 애니메이션 마니아들이 영어로 번역된 작품을 쉽게 접할 수 없게 되자, 직접 자신이 좋아하는 작품에 자막을 입혀서 팬들이 공유한 것에서 시작되었다. 점차 컴퓨터와 인터넷이 발달함에 따라 팬서브는 전 세계에서 가장 성행하는 번역의 형태 중 하나가 되었지만, 영상물의 불법유통에 일조함으로써, 2005년 대형 일본 애니메이션 제작사인 미디어 팩토리는 팬서브 사이트들에게 자사의 애니메이션 자막삽입 및 배포를 중단해줄 것을 정식 요청하기에 이르렀다. 우리나라에도 각종 영화나 드라마 다운로드 사이트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팬서브는 그것이 가진 부정적 시각과 비전문성에도 불구하고 대중들에게 미치는 영향력은 매우 크다. 그러나 같은 이유로 학계에서는 거의 연구되지 않는 분야이다. Díaz-Cintas and Remael(2007)은 팬서브를 ‘팬에 의한 팬을 위한(by fans for fans)’ 번역이라고 칭하며, 기존의 번역보다 덜 고압적이고, 더 창의적이며 개인의 개성이 잘 표출된다고 한다. 이와 같은 특징을 가질 수 있는 이유는 기존 번역이 갖는 시·공간상의 제약을 어느 정도 무시하고 원작의 내용과 의도 전달에 더 집중할 수 있다는 점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 3. 자막번역의 특징

3장에서는 앞서 다룬 영상번역의 주요 네 가지 종류 중에서 본 논문의 논점이 되는 영화번역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자막번역의 특징을 살펴보고자 한다.

#### 3.1. 단순화

영화번역에서 주안점은 제한된 시간과 공간속에서 어떻게 목표언어의 관객이 원천언어의 관객과 동일한 효과를 누리게 하는가이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시·공간상 제약으로 인해 자막은 원천언어의 대사보다 단순화(Simplification)되는 특징을 갖는다. 다음은 영화 <타이타닉(1997)>에 나오는 대사이다.

(1)

ST	TT
Captain, the press knows the size of Titanic. Now I want them to marvel at her speed. We must give them something new to print. This maiden voyage of Titanic must make headlines!	난 이 배로 기록을 깨고 싶소 기사감이 되게 신문의 첫 머리를 장식하고 싶다구 <sup>2)</sup>

(2)

ST	TT
Mr. ISMAY. I would prefer not to push the engines until they've been properly run in.	이사님, 아직 새 엔진이라 길을 좀 들여야지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번역자막은 ST의 대사보다 현저하게 짧다. 그 이유의 언어는 글로 전달될 때보다 말로 전달될 때 이해속도가 더 빠르기 때문

2) 본 논문에서는 분석대상 텍스트인 자막 자체의 잘못된 맞춤법이나 띄어쓰기를 임의로 수정하지 않음. TT의 줄 바꾸기 또한 자막과 동일하게 표기함.

이다. 따라서 자막보다 실제 대사는 더 많은 정보를 전달할 수 있고, 제한된 시간에 원문의 내용을 전달해야 하는 자막에서는 상대적으로 덜 중요한 부분의 생략과 축약이 필수적이다. 장민호(2008b)는 영화에서 ST와 TT의 단어수를 비교분석한 결과 액션 영화의 경우 자막의 양적 축소가 가장 크고, 애정 영화에서의 축소가 가장 적었으며, 애니메이션과 추리장르가 그 중간을 차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윤철(2008)은 영화 자막번역의 경우 영상이 함께 제공되기 때문에 시각적 요소들이 번역과정에서 발생하는 생략과 축소 등으로 인한 단순화를 보완해 준다고 주장한다.

### 3.2. 표준화

단순화에 이은 자막번역의 두 번째 특징은 표준화(Standardization)이다. 텍스트에서 텍스트로 옮기는 일반적인 번역과는 달리 자막번역은 말로 표현되는 언어를 글로 옮겨야 하는데, 특히 영화 대사는 시대적 특성을 반영한 전형적 어투나 그 시대의 신조어, 특정 집단만의 은어와 비속어, 혹은 비문법적 표현이나 욕설 등을 포함하는 경우가 많으며, 이러한 경향은 점점 더 강해지고 있는 추세이다. 이렇게 영화대사는 상대적으로 자유롭지만, 이 ‘걸러지지’ 않은 표현이 극장의 대형 스크린에 자막이라는 ‘글’의 형태로 나타나는 것은 번역가와 관객, 그리고 영화관계자에게도 꺼려지는 문제일 것이다. 여기서 자막번역의 표준어 지향의 성격이 나타난다.

Ivarsson and Carroll(1998)은 사람들은 의식적으로나 무의식적으로 자막을 통해서 언어적 기술을 습득하기 때문에 자막번역가는 원천언어의 문법과 실수를 수정해야 한다고 말한다. 그러나 지식전달의 기능을 하는 다큐멘터리나 뉴스 등의 번역일 경우, 사소한 문법적 수정은 전체 프로그램의 성격을 해치지 않고 가독성을 높여주는 반면, 영화에서는 대사가 표면적으로 전달하는 명시적 의미 외에도 대화하는 사람의 어투와 발음, 심지어 비문법적인 표현도 나름의 암묵적 의미를 전달하기 위해 선택된 것이며, 시각적 요소로 그러한 의미를 보완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그러므로 무턱대고 표준화를 시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다음은 영화 <칼라 퍼플(2003)>에서 주인공 내레이션의 일부이다.

(3)

ST	TT
I don't think he <i>kilt</i> my baby boy <sup>3)</sup>	그가 제 아이를 죽인 것 같진 않아요
She got my eyes, just <i>they is</i> today	눈이 절 꼭 닮았어요
<i>My heart say she mine</i>	제 심장은 내 아이래요

주인공은 교육받지 못하고 학대받는 흑인여성으로 특징적인 어투를 사용한다. (3)에서 보는 것처럼 주인공은 과거시제 ‘killed’ 대신 ‘kilt’로, ‘they are’ 대신 ‘they is’, 혹은 ‘My heart says she is mine.’과 같이 말해야 할 부분에서 ‘My heart say she mine’으로 동사의 수일치를 시키지 않거나 아예 생략하기도 한다. 위의 예 외에도 영화 전반에서 이러한 비문법적 대사를 구사하고 있으며, 이 영화의 원작 소설에서는 더욱 극단적으로 나타난다. 이는 주인공이 제대로 교육받지 못했고 사회적 약자임을 말해주는 도구이다. 그러나 한국어 자막인 TT는 자막의 특징인 표준화 과정을 거치면서 이 부분의 기능이 상실되고 예문 (4)의 주인공 대사는 오히려 여류작가 같은 지식인이 과거를 회상하는 듯한 느낌마저 준다.

(4)

ST	TT
...cussing and screaming...	욕을 하며, 소리를 지르며
because <i>her heart been broke</i>	크게 <u>상심</u> 하셨거든요

ST에서의 구어적 표현인 ‘cussing’이라든지, ‘her heart been broken’과 같은 특징적이고 유표적인 문법과 어투가 TT에서는 상실되었고, 글도 배우지 못한 소녀가 쓰기에는 다소 높은 수준의 ‘상심’이라는 단어가 사용되었다.

아래는 영화 <마이 페어 레이디(2002)>에서의 대사료 유표성 번역에 지나치게 중점을 둔 경우라 볼 수 있다.

3) 원천언어의 대사에서 나타난 비문법적 요소를 기울임체와 밑줄로 표시함

(5)

ST	TT
I <i>ain't done nothing</i> wrong by <i>speakin'</i> to the gentleman	지가 뭘 잘못 했남유?

(6)

	ST	TT1(DVD)	TT2(Fansubs)
Eliza	The rine in Spine stais minely in the pline	스파인의 비는 평야에 그대로 남아있시유	스페인에서 비는 주우로 평원에 내리다
Higgins	The rain in Spain stays mainly in the plain	스페인의 비는 평야에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스페인에서 비는 주로 평원에 내린다
Eliza	Didn't I say that?	지가 그랬잖아유	그렇게 마라지 않았나요?
Higgins	No, Eliza, you didn't "say" that. You didn't even "say" that	안 그랬어유, 일라이자	아니 일라이자 그렇게 마라지 않았고 게다가 '마라지'가 아니라 '말하지'야

(5)의 경우는 일반적으로 흔히 사용되는 비문법적 요소인 이중부정이 바로 잡아져서 크게 문제되지 않는다. 예문(5)와 (6)에 공통으로 해당되는 요소는 방언과 특정사회계층을 나타내는 이른바 사회적 방언이다. 위 장면은 교육받지 못한 시골출신의 런던 노동자 계층의 언어를 쓰고 있는 여주인공 일라이자가 음운학교수 히긴스로부터 상류층의 표준어를 배우고 있는 모습이다. 이 부분에서는 명시적 의미보다 발음의 차이를 번역해야 하는데, TT1은 그 도구로써 우리나라 충청도 방언을 사용하고 있다. 이것은 일반적인 자막번역의 특징인 표준화의 틀을 부순 것으로, 자막에서 상실될 수 있는 부분을 특정 지역의 방언을 활용했다는 점은 높이 평가하지만, 일반적으로 방언을 쓰는 사람들도 책을 읽을 때는 눈에 보이는 활자의 어미까지 바뀌 읽지는 않기 때문에 부적절하며, 유표성의 전달이 지나치게 방언에만 의존하고 있다. TT2는 특이한 발음을 자막에서도 유표적으로 잘 살려내고 있지만, 히긴스 교수의

대사에서 팬서브 특유의 ‘글자 수 무시’로 자막이 길어져서 주어진 시간에 다 읽기가 힘든 단점이 있다.

### 3.3. 평면화

자막번역의 세 번째 특징은 대부분의 번역에서 발생하는 문화지시어의 평면화(Neutralization)이다. 문화지시어란 한 나라의 문화, 역사, 또는 지리와 관련된 것들을 지칭하는 특수한 어휘로, Vandeweghe(2005; Diaz-Cintas and Remael, 2007에서 재인용)는 문화지시어를 다음과 같이 세 가지로 분류하고 있다.

(7)

◎ 지리적 지시어(Geographical references)

- 사바나, 세콰이아 등의 특정 지방 고유의 동식물

◎ 민족 지리적 지시어(Ethnographical references)

- 이글루, 가우초 등의 특정 지역 대상물이나 직업
- 문화예술: 블루스, 추수감사절, 로미오와 줄리엣 등
- 측량단위: 인치, 온스, 유로, 파운드 등

◎ 사회정치적 지시어(Socio-political references)

- 행정구역 및 제도: 군이나 주와 같은 행정구역, 보안관, 의회, 금주법 등

위와 같은 문화지시어들이 번역될 때, TT에서 ST와 동일한 독자의 반응을 끌어내기란 쉽지 않다. 이유는 물론 TT 독자들이 ST 독자와 동일한 배경 지식을 공유하지 않기 때문이다. 일반 번역의 경우는 풀어서 설명을 하거나 각주를 다는 방법도 있지만 자막번역에서는 이것이 불가능하다. 그러므로 번역가는 문화적 여과장치(cultural-filter)를 통해 여러 가지 특색 있는 표현들을 평면화 시키기도 한다. 예를 들면 미국을 배경으로 한 영화에서 ‘googling’이나 ‘E-Bay’같은 단어가 한글로 번역될 때는 이에 해당하는 상위어 ‘인터넷’으로 번역되는 등이 해당된다.

본 장에서는 영화의 자막 번역시 나타나는 특징을 생략 또는 축소를 통한 단순화, 비문법적 표현과 방언 등의 번역과정에서의 표준화, 문화지시어의 성격을 약화시키는 평면화의 세 가지로 규정하였다. 영상자막의 시·공간적 제

약 때문에 발생하는 이와 같은 자막 번역의 특징은 영화 대사에 나타나는 유표성을 제대로 표현하는데 한계를 가져온다. 다음 장에서는 자막 번역의 특징으로 인한 유표성 상실의 보완기제로서의 번역전략을 논의하기로 한다.

#### 4. 유표적 대사의 자막번역전략

김도훈(2005) 등 많은 번역 이론가들은 ST독자와 TT독자가 동일한 반응을 가질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마찬가지로 영화에서도 TL(Target Language) 관객에게 SL(Source Language) 관객과 동일한 웃음과 감동의 반응을 끌어내야 한다. 김도훈(2005)은 수용자 반응의 등가를 구현하기 위한 방법으로 베누티의 ‘현지화’를 제시하지만, 영상번역의 경우 ‘현지화’의 적용시에 화면에서 제공해주는 정보와 자막의 정보가 불일치되는 문제를 낳는다. 그러므로 4장에서는 자막번역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유표성의 단순화, 표준화, 평면화에 대한 방어기제로서 자막번역전략을 다루고자 한다.

Díaz-Cintas and Remael(2007)은 영화를 포함한 영상에서 언어적 유표성은 크게 어투, 언어사용역, 방언, 감정적 어휘(swearwords/taboo words)의 네 가지로 나타난다고 본다. 여기서 방언이 나타나는 양상은 문법, 어휘, 강세와 발음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감정적 어휘에는 금기어, 욕설, 감탄사가 포함된다. 본 연구는, 영화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만들어지며, 대상관객의 연령대는 원천언어와 목표언어가 동일하다고 보고, 언어사용역을 배제한 채, 방언, 감정적 어휘, 문화지시어의 세 가지로 분류하여 한국영화가 영어로 번역될 때 각각의 번역전략을 알아보기로 한다. 주요 분석대상 텍스트인 영화 <위험한 상견례(2011)>는 전라도 남성과 경상도 여성이 만나 두 집안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결혼한다는 내용으로 거의 모든 대사가 방언이다. 또한 경상도와 전라도의 지역감정과 이로 인한 갈등이 영화의 주요 소재이기 때문에 감정적 어휘나 한국 내에서도 지역특수적인 문화지칭어가 많이 등장하기 때문에 본 연구의 분석대상으로 선택되었다.

##### 4.1. 방언

Baker(1992)는 방언(Dialects)을 크게 일반적인 의미의 지역방언, 공동체 내에서 연령에 따라 달라지는 어휘나, 동일 언어 내에서 시간이 지남에 따라

달라지는 시간방언, 그리고 사회 계층에 따라 다른 사회방언의 세 가지로 구분한다. 본 연구에서는 Díaz-Cintas and Remael(2007)의 분류에 따라 지역적 특색을 담고 있는 지역 방언과 특정 사회나 경제 그룹에서 말해지는 사회적 방언, 속어, 혀 짧은 소리와 같은 개인의 언어습관에서 나오는 개인어를 모두 큰 의미에서의 방언의 범주에 넣기로 한다.

분석텍스트인 <위험한 상견례(2011)>의 번역자막은 전라도와 경상도의 방언을 별도로 구분하지 않고, 둘 다 비격식적인 구어적 표현과 미국 남동부지방의 어투를 사용하였다. 그러나 전라도 방언에는 감탄사 ‘Wah(아파, 위메)’나 ‘luh(이보쇼)’, ‘whatchamacallit(거시기)’ 혹은 문장 끝에 ‘eh’를 붙이고, 경상도 방언에는 ‘Golly(옴마야)’ 등의 감탄사를 사용하여 각각 다른 지역의 방언이라는 신호를 주었다. 예문(8)은 전라도 방언의 번역이다.

(8)

ST	TT
위메! 따가운 거!	Wah! That smarts!
이보쇼! 어디 허락도 없이 걸쳐부요	Luh! Get yo hands off
아파, 너는 거시기 밖에 모르냐?	Whatchamacallit's the only thing you know in our dialect?
여그가 시방 공격 어디랑가	Where the hell am I, eh?

영화전체에서 감탄사 ‘Wah’와 ‘Luh’는 총 18번 사용되어 전라도 방언 감탄사의 대부분을 차지했다. ‘거시기’에 해당하는 ‘whatchamacallit’은 총 6번 나오지만, 서울출신이라고 속이고 경상도 여자와 결혼하려고 했던 남자주인공이 전라도 출신임을 드러내는 결정적 단서로 작용한다. 가장 많이 쓰인 전라도 방언의 번역은 ‘eh’로 총 71번 사용되어, 다양한 전라도 어휘의 번역을 대신하고 있다. 그 외에도 전라도 방언에서 ‘여자’, ‘아가씨’ 등의 번역으로 ‘girl(s)’라는 단어 대신 ‘gal(s)’를 사용하였고 그 빈도는 14회이다. 경상도 방언을 대신하며 나타난 ‘golly(옴마야)’는 16번 사용되었다. 이 영화의 자막번역은 경상도 방언보다 전라도 방언이 더 유표적으로 드러나고 있다. 이유는 전라도 남성이 경상도에 와서 겪는 에피소드가 주류를 이루기 때문이고 따라서

전라도 방언을 부각시킨 것은 매우 적절해 보인다. 예문 (9)에서 보는 것처럼 비문법적 표현의 사용도 방언의 빼놓을 수 없는 특징이다.

(9)

ST	TT
우리 아버지는 뭐 나는 자식 취급도 안 해 분디 뭐	Well, <i>me dad</i> practically disowned me

전라도 방언의 번역에서는 1인칭의 경우 소유격 ‘my’ 대신 주로 ‘me’를 쓰고, 전라도와 경상도 방언 둘 다 ‘He doesn’t’ 대신 ‘He don’t’와 같은 비문법적 표현이 포함된 것은 영어에서 몇몇 지방방언이나 구어체의 비문법적 특성을 차용한 것으로 보인다. 그 외에도 ‘What are you’ 대신 ‘Watcha’, ‘about’ 대신 ‘bout’, ‘you all’ 대신 ‘y’all’, ‘out of’ 대신 ‘outta’ 등의 표현들이 많이 사용되었다.

이 영화를 근거로 볼 때 ST의 방언은 주로 TT의 방언이나 특징적 구어체에 해당하는 어휘를 사용하거나, 비문법적 표현을 사용함으로써 그 유표성을 어느 정도 유지할 수 있다.

#### 4.2. 감정적 어휘

시대가 변함에 따라 사람들의 표현에 대한 수용의 폭도 점점 더 넓어지고 있다. 실생활에서도 과거보다 욕설이나 사회적 금기어들이 훨씬 더 자주 사용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우리나라 뿐 아니라 전 세계적인 경향으로 파악된다. 영국 광고방송 위원회 홈페이지에서 공개한 연구 자료(2000)에서 이러한 추세는 더욱 잘 나타난다. 영국 방공광고위원회와 BBC방송사, 방송위원회가 공동 시행한 연구조사에서, 흑인을 비하하는 단어인 ‘nigger’이나 파키스탄 사람에 대한 경멸적 어투 ‘Paki’같은 인종차별적 단어, 약자를 비하하는 ‘spastic’과 같은 단어들은 방송 부적합으로 판정 났지만, 과거에는 부적합하다고 인식되는 ‘FUCK<sup>4)</sup>’에 대해서는 오직 8퍼센트의 위원들만이 ‘전시간대 방송부적합’이라는 의견을 냈다. 이러한 의견은 세대 간에도 큰 격차를 보였는데, 대부분의 욕설에 대해서 18세에서 34세 사이의 젊은이들이 55세 이상의 연장자들보다 관대했다. Murphy(2009)는 아일랜드에서 욕설사용의 실제빈

4) ‘fuck’을 어근으로 하는 파생어와 관용어의 통칭을 ‘FUCK’으로 표시

도를 조사하였는데, 20대 남성끼리의 대화의 경우, 60분에서 90분간의 대화에서 평균 111번의 'FUCK'을 사용하였다고 한다. 이 조사가 주로 친구들 간의 대화였고, 대화주제가 시험과 스포츠였기 때문에 그 빈도가 실제보다 좀 더 높게 나왔을 가능성은 있다. 이렇게 일상 대화에서 욕설이 많이 사용된다고 해서, 욕설이 무분별하게 사용되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되어서도 안 되기 때문에, 욕설번역이 어디까지 허용되는지에 대한 판단은 쉽지 않다. 또한 활자로 표현되어야 하는 자막번역의 특성상 생략이나 약화 현상이 두드러진다.

<위험한 상견례(2011)>에서도 욕설은 쉽게 들을 수 있지만, 12세 관람 등급이므로 영화에서 사용되는 욕설도 코믹하게 변형되어 있다. 번역자막에서 가장 많이 쓰인 'dang'은 'damn'의 완곡한 표현으로 총 12번 사용된 'damn'보다 두 배 더 많은 24번 사용되었다. 예문(10)은 욕설이라기보다는 강한 어투에 가까운 대사 번역의 예이다.

(10)

ST	TT
저노무 가스나가 어디다 대가릴 쳐 박노 저거	Where's she putting her head!
머쓰마 낮판때기 보라 저	Look at the <i>mug on the chap!</i>

첫 번째 예문의 경우, 원문에서 느껴지는 강한 감정이 TT에서 빠져있다. 그러나 두 번째 예문에서는 'chap(놈)' 이나 'mug(얼굴의 속어)'을 사용해서 의미전달이 잘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좀 더 강한 욕설의 경우에는 거의 축약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11)

ST	TT
이 죽을라고 환장을 했어 개노무새끼	<i>Wanna die chomp?</i>
아따 깜깜혀 디저분디 이제 살것네, 엠병!	<i>Dang, it was so frustrating!</i>
니미 순 롯데껌이네	All Lotte gums?

<위험한 상견례(2011)>의 경우는 위와 같이 그 내용이 축약되기는 하지만, 원문에 충실한 번역에 해당되는 경우로, 여타 영화에서는 아예 욕설부분을 생략하기도 한다. 아래 예문(12)은 영화 <가문의 수난(2011)>에서 범인의 이름이 한글로 나오는 부분이다. 영화에서 욕설이 종종 생략되긴 하지만, 화면상 한글이 나오에도 불구하고 영어자막이 생략되어 있다.

(12)

ST	TT
이름: 이재끼겐지 은행강도 7범	(out)

욕설이나 금기어의 경우, 전체적으로 약화되거나 생략되는 경향을 살펴보았다.

### 4.3. 문화지시어

문화적 어휘의 번역에 관한 논의는 상대적으로 활발한 편이다. Baker(1992)는 문화적 어휘의 번역을 위한 여덟 가지 전략, 즉 상위어, 중립적이고 덜 표현적인 단어, 문화대체어, 차용어, 관련어, 비관련어로 설명, 생략, 삽화로 번역하기를 제시했다. 이 방법은 자막번역을 포함한 거의 모든 번역에 적용되는 일반론에 해당된다. Nedergaard-Larsen(1993)은 문화지시어(culture-bound words) 번역전략으로 전이/차용, 직역, 명시화, 바꿔 쓰기, 목표문화상황에 맞는 개작, 생략의 여섯 가지를 제시했다. 이 외에도 많은 학자들은 문화적 어휘의 번역에 있어서의 어려움을 인식하고 다양한 번역전략을 제시하고 있다.

자막번역에서 문화지시어 번역전략은 Gottlieb(1994)가 대표적인데, 그의 전략은 전이(transfer), 요약(condensation), 확장(expansion), 훼손(decimation), 바꿔 쓰기(paraphrase), 모작(imitation), 베껴 쓰기(transcription), 위치 바꾸기(dislocation), 생략(resignation)의 10가지이다. 본 연구는 위의 이론들을 바탕으로 차용, 직역, 명시, 치환, 생략의 다섯 가지 전략을 우리나라 영화 <위험한 상견례(2011)>의 한글 ST와 영어 TT를 비교분석한다. 또한 Díaz-Cintas and Remael(2007)가 제시한 아홉 가지 전략 중 신조어 전략은 앞으로 그 사용범위가 넓어질 것으로 예상되어 영불번역에서 그 예를 살펴보기로 한다.

4.3.1. 차용

차용(Loan)은 코낙, 머핀과 같은 외래어를 그대로 목표언어에서 사용하는 것을 뜻한다. 예문(13)은 우리나라 음식 잡채를 영어자막에서도 그대로 사용하고 있는 예이다. 영화에서는 화면을 통해서 특정 음식의 이름임을 쉽게 알 수 있기 때문에 다른 장르에 비해 차용이 더욱 유용하다.

(13)

ST	TT
이 <u>잡채</u> 는 특별히 내가 직접 만든 거예요	I especially made the <u>Japchae</u> myself

(14)

ST	TT
A: 아짐, 여 <u>해태껌</u> 한통만 주시오	A: Lady, give me a pack of <u>Haiti gum</u>
B: <u>해태껌</u> 없는데?	B: Don't carry <u>Haitai gum</u>
A: <u>해태껌</u> 이 없다니라? 장난치지 말고 얼른 주쇼! 바쁜께	A: Don't kid with me. I'm busy
B: 진짜! 우리는 <u>해태</u> 이런 건 취급을 안 하지. <u>롯데</u> 이런 것만 딱 갔다 놓지 <sup>5)</sup> , 우리는	B: Serious! We don't carry <u>Haitai stuff. Lotte gum's</u> the best right here

예문(14)는 전라도 남자가 경상도 가게에서 잔돈을 바꾸기 위해 껌을 사려고 하는 장면이다. 당시 전라도를 대표하던 ‘해태’와 경상도를 대표하는 ‘롯데’의 두 제품을 두고 팽팽한 대사가 이어지지만 이에 대한 배경지식이 없는 TT관객에게는 고유명사가 단순히 차용되어 번역된 대화내용이 막연할 수 있다. 이런 경우 번역에서 추가 정보를 제공해서 ‘Don’t

5) 본 논문에서는 예문으로 제시되는 자막의 잘못된 맞춤법이나 띄어쓰기를 임의로 수정하지 않음

carry Jeollado gum Haitai here'로 바꾼다면 TT관객의 이해가 더욱 쉬울 것이다. 본 연구자가 제시한 이 번역전략은 나중에 다루게 될 보충전략에 해당된다.

#### 4.3.2. 직역

직역(Calque)은 원문에 충실한 번역으로, 대표적인 예는 'Good morning'이 '안녕하세요'가 아니라, '좋은 아침'으로 번역되는 것이다. 분석대상 영화에서 문화지시어가 직역된 예는 주인공이 군제대시에 경례하는 장면에서이다.

(15)

ST	TT
충성	Allegiance!

#### 4.3.3. 명시

명시(Explicitation)는 번역가가 하위어나 상위어를 사용하여 TT관객에게 ST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는 것이다. 주로 요리나 그 재료의 번역에서는 목표문화에 존재하지 않는 것을 목표문화물로 대체하는 것으로 자주 사용된다. 예문(16)에서 '룻'은 상위어인 'algae'로 번역되어 TT관객의 이해를 돕고 있다.

(16)

ST	TT
<u>광어룻죽</u> 이라고 하는 거야	It's halibut and <u>algae porridge</u>

(17)

ST	TT
엄병, <u>너물이고 간장게장이고</u> 허벌라게 처먹더라 씨부럴	You slurped up <u>everythin'</u> <u>I made Jeolla-do style!</u> Shit!

예문(17)에서도 TT는 ST에 나타난 구체적인 음식의 이름 대신 ‘everythn’ I made Jeolla-do style’이라는 상위어를 사용하면서 이것이 진라도 음식이라는 설명을 덧붙이고 있다. 예문(18)에서는 등장인물이 ‘폭탄주’를 의미하는 ‘폭탄’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였는데, 영어 TT에서는 ‘mix em up’과 같이 풀어서 설명하여 그 뜻을 잘 전달하고 있다. 그러나 이 말에 대한 대꾸인 ST가 그 의미를 의도적으로 실제 ‘폭탄’으로 바뀌어서 조롱하는 어투를 사용하고 있지만 TT에서는 앞선 대사의 명시적 번역으로 인해 이 말장난을 살릴 방법이 차단되었다.

(18)

ST	TT
A: 이 폭탄으로다가 미인우대 할 기회를 한 번 쥐보쇼야	A: We'll mix em up good to treat ya gals
B: 뭐 어서 뭐 저 뭐 폭탄을 제조해야?	B: Wah? Mix the drinks?

#### 4.3.4. 치환

치환(Transposition)은 한 문화의 개념이 다른 문화의 개념으로 대체되는 것인데, 주로 TT의 수용자가 ST의 지시물을 알지 못할 때 사용되는 것으로 ‘mile’을 ‘km’로 환산한다던가, ‘a nickel’을 ‘5센트 동전’으로 바뀌 주는 등이 이 전략에 해당된다. 하지만 영한번역 영상물의 경우, 최근 관객들이 영어를 알아듣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치환전략은 점차 줄어드는 추세이다(Díaz-Cintas and Remael, 2007). 예문 (19)는 주인공 커플이 레스토랑에서 스프를 주문하는 장면이다. ST에서 우리나라 특정 상표인 ‘오투기 스프’가 TT에서는 미국 식품회사 이름으로 치환되어서 TT관객의 이해를 돕고 있다. 고유명사는 영화가 수출되는 목표문화에 맞추어 바뀌어야 한다.

(19)

ST	TT
A: 스프는 어떤 걸로 드릴까요?	A: What soup would you like?
B: 뭐 스프하면은 저, <u>오투기 스프</u> 아이요?	B: Well, <i>Campbell's soup</i> of course

(20)

ST	TT
여자가 뭐 <u>김장철 배추</u> 도 아니고, 뭐 철 지났다고 뭐, 떨어로 넘긴대요	A girl ain't no <i>Christmas tree</i> you chuck out after the season

(20)은 딸을 빨리 결혼시키고자 하는 아버지의 태도에 불만을 토로하는 부분으로 번역가는 ‘철지난 김장철 배추’를 시즌이 끝난 크리스마스트리로 치환하여 그 의미를 잘 살리고 있다. 김도훈(2005)도 언급했다시피, 번역가의 문화적 차이에 대한 지식이 중요한 부분이다.

#### 4.3.5. 생략

앞서 자막번역의 특징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생략(Omission)은 시·공간적 제약 때문에 발생하기도 하지만, 목표언어에 상응하는 단어가 없을 때에도 발생한다. 대사가 빠른 코미디 영화의 특성상 <위험한 상견례(2011)>는 대사의 상당부분이 생략되어 있지만, 전체적인 흐름에 크게 영향을 주지 않는다. 그러나 예문(21)에서는 생략으로 인해 대사의 응집성이 부족해진다.

(21)

ST	TT
A: 물 흐리지 마시고 정중하게 돌아가 주셨으면 좋겠소	A: Leave quietly, eh?
B: 여기 수질관리는 당신이 하시고요	B: That's your problem

예문(21)에서 ‘물 흐리다’는 우리말에서 흔히 ‘분위기’라는 의미로 쓰이는 표현이다. 그러나 TT에서는 그 표현이 생략되어서 B의 대사와 흐름이 맞지 않다. ‘물 흐리다’는 유표적 대사를 포기했다면 ‘*You be quite, eh?*’와 같이 일관성 있게 대사를 풀어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 4.3.6. 신조어

최근 실생활에서 많은 신조어(Lexical recreation)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영화는 실생활의 언어가 고스란히 반영되는 특성상 앞으로 이 신조어 전략의 사용은 증가할 것으로 파악된다. 이러한 이유로 본 연구의 분석텍스트에는 해당 예시가 없지만, 앞으로의 사용 가능성을 고려하여 신조어 전략을 다루고자 한다. 예문 (22)는 영화 <맨인블랙(2000)>의 한 장면으로, 월 스미스가 요원으로 근무한 첫 날을 보내고 선배 앞에서 하는 말이다.

(22)

ST	This definitely rates about 9.0 on my <i>weird shit-o-meter</i>
BT <sup>6)</sup> of French TT	This merits a 9 on my <i>oddity-meter</i>
Korean TT	눈뜨고 못 봐줄 기막힌 꼬라지군

위 예문에서 월 스미스는 오늘 자신이 아주 독특한 경험을 했다는 표현으로 ‘9.0 on my weird shit-o-meter’라는 표현을 만들어 냈다. 실제로 최근 미국에서는 ‘shit-o-meter’라는 표현을 사용하고는 있지만, 영화가 나올 당시는 신조어에 해당했었다. 당시 불어번역에서는 이 신조어와 비슷한 ‘oddity-meter’라는 단어를 만들어내어 신조어 전략을 구사했다. 그러나 한글 TT에서는 ‘오늘은 이상경험지수 9점은 되겠어’와 같이 신조어를 만드는 대신, 풀어서 설명하는 일종의 보완전략만을 취했다.

6) Back Translation의 출입말. 역번역

## 5. 결론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영상번역은 그 종류가 다양하지만 영화 번역에 가장 많이 쓰이는 자막에서는 문법과 어휘, 어투에서 나타나는 유표성이 단순화, 표준화, 평면화되는 특징이 있다. 이렇게 상실되는 유표성이 시각적 요소, 즉 영상을 통해서 보완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영화대사의 유표성을 나타내는 도구를 크게 방언, 감정적 어휘, 문화지시어의 세 가지로 나누고, 각각의 번역전략을 한국영화 <위험한 상견례(2011)>의 한글대사와 영어자막에 맞추어 분석하였다. 첫 째, 방언은 주로 목표언어에서의 특정지역 어휘, 비문법적 표현, 축약적인 철자를 통해서 표현되었다. 둘째, 욕설과 금기어로 대표되는 감정적 어휘는 생략되거나 약화되는 경향을 보였다. 최근 영화에서는 과거에 비해 욕설이나 금기어를 사용하는 빈도가 높아졌기 때문에 자막에서의 사용규제도 완화되었지만, 여전히 어디까지 허용되는지의 경계는 모호하여, 각각의 상황에서 번역가가 고민해야 할 몫이다. 셋 째, 문화지시어의 번역에 대한 전략은 여러 학자들이 제시한 전략을 바탕으로 차용, 직역, 명시, 치환, 생략, 신조어의 여섯 가지를 분석대상 영화에서 찾아보았고, 그 예를 발견하지 못했으나 신조어전략은 그 사용빈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유표성 번역에 대한 선행연구는 대부분 문화지시어에 편중되어 있었다. 본 연구를 통해서 최근 영화의 번역과정에서 부딪치는 문제 중 개성을 강조한 사회적 방언이나 개인어, 그 비중이 확실히 늘어나고 있는 욕설과 비속어의 번역에 대한 연구가 좀 더 활발히 진행되어야 할 필요성을 확인하였다.

대중문화의 중심에 서서 그 문화를 고스란히 반영하고 있는 영화를 번역한다는 것은 하나의 문화를 번역하는 것과 같다. 문화를 번역함에 있어서 유표성의 전달은 특히 신중해야 하며 다양한 전략을 접목시킬 필요가 있다.

**주제어:** 영화번역, 자막, 유표적 대사, 방언, 감정적 어휘, 문화지시어

## 참고문헌

김도훈. 2005. 어린이 그림책 번역에 있어서의 수용자 반응의 중요성 - 「괴물들이 사는 나라」를 중심으로. 『언어과학』 12.3, 25-39.

- 박윤철. 2008. 시각 요소에 의한 정중성 보존 연구 - 영화 자막 번역 중심으로. 『번역학연구』 9.1, 145-166.
- 장민호. 2008a. 『번역과 자막』. 서울: 한국문화사.
- 장민호. 2009b. *영화장르별 자막번역의 양적변화연구*. 한국외국어대학교 박사논문.
- M. 졸리, 김동운 옮김. 1999. 『영상이미지 읽기』. 서울: 문예출판사.
- Baker, M. 1992. *In Other Words: A Course Book on the Translation*, London and New York: Routledge.
- Díaz-Cintas, J. and A. Remael. 2007. *Audiovisual Translation: Subtitling*, Manchester: St. Jerome P.
- Gottlieb, H. 1994. Subtitling: *Diagonal Translation, Perspectives - Studies in Translatology* 2(1), 101-121.
- Hatim, B. and I. Mason. 1997. *The Translator as Communicator*, New York: Routledge.
- Ivarsson, J. and M. Carroll. 1998. *Subtitling*. Simrishamn: TransEdit.
- Munday, J. 2008. *Introducing Translation Studies*, London and New York: Routledge.
- Murphy, B. 2009. 'She's a Fucking Ticket': the Pragmatics of FUCK in Irish English - an Age and Gender Perspective. *Corpora* 4(1), 85-106.
- Nedergaard-Larsen, B. 1993. Culture-bound Problems in Subtitling, Perspective: *Studies in Translatology* 1(2), 207-241.

인터넷자료

- 영국 광고방송 위원회 <http://www.asa.or.uk>  
한국영화진흥위원회 <http://www.kofic.or.kr>

분석텍스트-영화

- 가문의 수난. 2011. KD미디어  
마이 페어 레이디. 2002. 워너브라더스  
맨인블랙. 2000. 콜럼비아 트라이스타  
위험한 상견례. 2011. 캔들미디어  
칼라 퍼플. 2003. 워너브라더스  
타이타닉. 1997. 20세기 폭스

이상도

609-735 부산시 금정구 부산대학로63번길 2  
부산대학교 인문대학 영어영문학과  
전화번호: 051-510-2041  
전자우편: leesd@pusan.ac.kr

손은희

609-735 부산시 금정구 부산대학로63번길 2  
부산대학교 인문대학 영어영문학과  
전화번호: 010-2567-3902  
전자우편: lumag@daum.net

투고일자: 2012. 03. 25

수정일자: 2012. 05. 10

확정일자: 2012. 05. 24